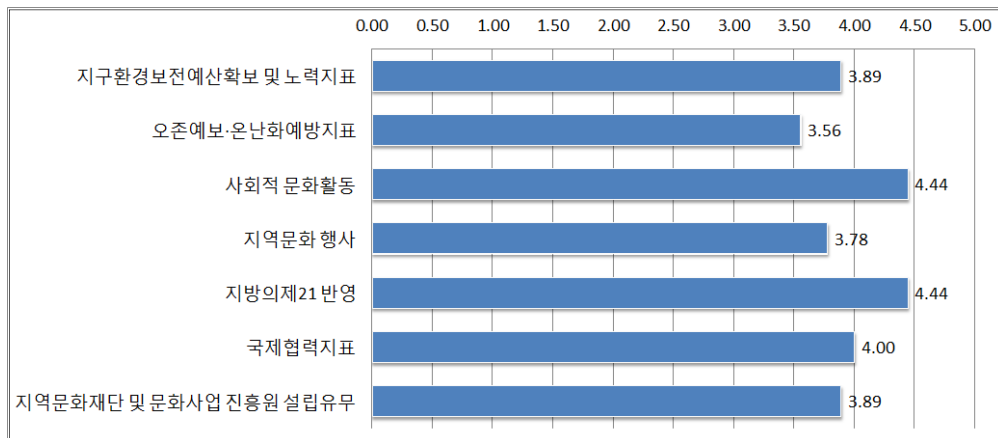


역할 분담 및 주민참여에서는 평균 4.0점으로 나타났으며, 생태적 문화활동에서 오존예보-온난화예방지표에서 3.56점, 문화활동에서 지역문화행사 3.78점으로 나타났다. 전문가 의견에서는 주민참여와 역할 분류에서 실질적 활동에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, 주민참여를 생태와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지표설정에 대한 고려를 제시하였다.



<그림 12> 역할분담 및 주민참여 지표 적합성 검증결과

중분류 12개, 세부지표 71개에서 적합성 평가결과 전체평균 3.78점 이하의 지표 개수는 30개 지표로 나타났으며, 적합도 보통이하의 지표는 5개 지표로 시·군별 축제 및 행사경비 지출 금액 2.44, 지역문화 예술 프로그램 수 2.22, 지역별 문화카드 발급대비 이용률 2.11, 지역별 문화카드 예산대비 집행률 2.11, 역사문화지표 2.89로 확인되었다.

FGI를 통해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, 그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분야별, 지표별로 경향성을 비교 및 검토해 볼 수 있었다. 본 연구에서 1차적으로 도출하였던 평가지표에서 적합성 검증 결과 41개의 지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그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로써 향후 지표간의 중요도 및 평가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라 판단되었다.